

스포츠동아

2015년 1월 16·17일 주말판 sportsdonga.com 20판



GS칼텍스 주장 한송이
연탄은행에 성금낸 사연

4면

프로농구 경기 결과	15일
동부 67 : 59 모비스	LG 95 : 77 삼성
프로배구 경기 결과	15일
GS칼텍스 3 : 2 현대건설	

캡틴 기성용, 박지성의 향기가 난다

위기의 대표팀 '운명을 짊어진 남자'

17일 강적 호주 꼭 꺾어야 아시안컵 조1위
손흥민·구자철 감기 몸살 슈틸리케호 위기
'박지성 소통법' 벤치마킹 동료들 기살리기



2015호주아시안컵에 출전한 축구국가대표팀은 부상, 컨디션 난조, 경기력 부진 등으로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번 대회에 맞춰 대표팀 주장으로 선임된 기성용은 동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흐트러진 팀 분위기를 추스리기 위해 애쓰고 있다. 한국은 17일 개최국 호주와 A조 최종전을 치른다.

선수들 부상·컨디션 난조 속 '분위기 전환' 중요
기성용, 식사때 테이블 옮겨다니며 필승 스킨십



2015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에 출전한 축구국가대표팀은 17일 오후 6시(한국시간) 개최국 호주와 조별리그 A조 최종전을 치른다. 대표팀은 결전을 이틀 앞둔 15일 브리즈번 퀸즐랜드 스포츠&어슬레틱 센터에서 부상 때문에 중도 귀국한 이청용(27·볼턴)을 제외한 22명의 선수가 참가한 가운데 훈련을 진행했다. 감기몸살 등으로 몸이 좋지 않았던 구자철(26·마인츠)과 손흥민(23·레버쿠젠)은 10일 오만전 이후 처음으로 축구화를 신고 그라운드에서 볼 터치를 하는 등 동료들에 비해 다소 강도가 약한 훈련을 소화했다.

대표팀 관계자는 "두 선수는 오늘부터 서서히 경기 출전을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풀어진 근육을 다시 만드는

작업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전을 목표로 급하게 몸을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이미 8강 진출이 결정돼 다음 경기(22일)까지 고려해 차근차근 몸을 만들 어갈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손흥민과 구자철은 호주전에 나선다고 해도 선발이 아닌 후반 교체 멤버로 투입될 전망이다.

대표팀은 13일 쿠웨이트전처럼 손흥민과 구자철을 스타팅에서 제외하고 공격진을 구성해야 한다. 쿠웨이트를 1-0으로 꺾긴 했지만 기대이하의 경기력을 보였던 만큼, 강호 호주를 상대로도 고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부상자 발생, 일부 선수의 컨디션 난조, 부진한 경기력 등이 겹친 까닭에 팀 분위기 또한 좋을 수는 없다.

대표팀 주장 기성용(26·스완지시티)은 이 같은 분위기의 전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는 주장 완장을 찬 뒤로 달려갔다. 대표팀에 선발된 모든 선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팀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애쓰고 있다. 고참들뿐 아니라 대표팀 경험이 일천한 이정협(24·상주상무)과도 자주 얘기를 주고받는다. 또 숙소에서 식사

할 때마다 테이블을 옮겨 다니며 밥을 먹는다.

이 박지성(34·은퇴)이 대표팀 주장을 맡은 이후 활용했던 방식이다. 박지성은 선수들과 자주 대화하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코칭스태프에게 전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 덕에 좋은 분위기가 형성됐고, 대표팀은 2010남아공월드컵에서 한국축구 사상 첫 원정 월드컵 16강 진출이라는 값진 성과를 냈다. 대표팀 주장 선배인 박지성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기성용은 호주전에서 지금까지의 부진을 씻고 조금이나마 발전한 모습을 보이겠다는 일념으로 이처럼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성용은 어린 시절 브리즈번 인근 도시에 위치한 존 폴 칼리지에서 축구유학을 했다. 낯설지 않은 환경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이번 아시안컵과 17일로 예정된 호주전을 더욱 각별하게 여기고 있다. 자신의 꿈을 키운 곳에서 한국축구가 55년간 풀지 못한 숙원인 아시안컵 우승을 달성하기 위해 기성용은 경기장 안팎에서 애쓰고 있다.

▶아시안컵 관련기사 2·3면

브리즈번(호주) | 최용석 기자 glyong@donga.com 트위터 @glyong11



프로야구 2015시즌이 사실상 시작됐다. 15일 한화 등 5개 구단들이 해외 스프링캠프로 출국한데 이어 16일엔 나머지 구단들이 짐을 꾸린다. 한화 김성근 감독(위)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캠프 각 오를 밝히고 있다. 김현수(아래)를 비롯한 두산 선수들도 밝은 표정으로 긴 여정에 나섰다.

전혼 출발! 전쟁이 시작됐다

한화·SK·NC·두산·삼성 등 전구단 해외로

2015시즌을 향한 소리 없는 전쟁의 총성이 울렸다. 15일 한화 SK NC 두산 삼성 등 5개 구단이 해외 스프링캠프로 출국해 공황은 프로야구 선수들로 복색을 이뤘다.

●한화 새벽에 공항 집결...김성근 감독 "훈련할 수 있어 기쁘다"

최근 3년 연속 최하위의 수모를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치는 한화 선수단이 가장 먼저 공항에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고치로 날아가기 위해 여명의 기운도 찾아들지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 4~5시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에 집결했다. 구단 직원을 제외하고 코칭스태프와 선수만 합쳐서 총 85명의 대규모 선수단이 스프링캠프를 소화하기 때문에 15일(1진)과 16일(2진) 이틀에 걸쳐 일본행 비행기에 오르는데, 이날만 해도 오전 8시 인천공항과 오전 8시40분 김포공항에서 출발하는 비행기에 나눠 탑승했다. 선수단과 동행하지 않고 홀로 오후에 출국한 한화 김성근 감독은 기자들에게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훈련을 할 수 있게 돼 기쁘다"는 일정을 터뜨리더니 실제로 이날 고치에 도착하자마자 저녁부터 '지속 훈련'을 지휘하기 시작했다. 선수들에게 단 하루의 휴식도 허락하지 않았다.

●SK NC 두산 삼성도 연이어 출발!

한화에 이어 SK 선수단이 오전 8시30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유일하게 미국 플로리다에서 1차 캠프를 진행하는 SK는 오전 11시45분 출발하는 비행기에 몸을 싣었다. 메이저리그 진출이 좌절된 김광현은 밝은 표정으로 "새롭고 활기찬 김광현다운 모습으로 던지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어 미국 애리조나에서 1차 캠프를 치르는 NC와 두산이 오전 11시를 전후해 인천공항에 나타났다. NC에는 김경문 감독은 물론 이종욱 손시헌 이해준 등 유망한 두산 출신이 많다. 더군다나 양 팀은 올 시즌 개막전 상대여서 이날 공항에서의 만남은 눈길을 끌 수밖에 없었다. 포교롭게도 양 팀은 오후 2시50분에 출발하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LA를 경유해 애리조나로 들어갔다.

▶6면으로 이어집니다

이재국 기자 keystone@donga.com 트위터 @keystonelee

편집 | 최혜경 기자 hk7048@donga.com 트위터@hk7048

대표이사 서영숙

수술 없이 강한 남자!!

20대의 막강 파워! '뉴 맨'!

안녕하세요, 영화배우 이등준입니다.

"세월의 흐름에 점점 약해져가는 당신, 강력했던 위상과 자존심마저 약해져 갑니다. 아스라해진 그때의 힘, 절정의 시간들, 뉴맨이 되돌려 드립니다."

이등준의 '뉴 맨'!

"최고의 남자로 다시 태어납니다."

특허 제 10-0756243 호 (PATENT NUMBER)

발명의 명칭 (TITLE OF THE INVENTION) **심기능 강화용 링**

특허청 등록

* 국내 최초 유일 특허 *

계배장치

본드부착 방식이 아닌 보석용광학식으로 방광구멍 전연자수정

자석 (약 700가우스)

두께 3mm의 일본 본체에 특허 기술로 진공 내용 분체 (순은)

중국지사 T. 0433-286-5031
지사장 권대근

일본지사 T. 03-6233-8994
지사장 호시 고우지

세계인의 자존심 '뉴 맨'

출시 10년만에 60만고객 돌파! 일본과 중국 지사 설립 동남아 국가를 비롯하여 전 세계 20여개국 판매

핸드폰 주소창에서 뉴맨.kr 을 입력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www.newm.kr

1. 힘이 약하다 ➡ 20대의 막강 파워!

2. 잘 시든다 ➡ 끝까지 강력하게!

3. 작고 빠르다 ➡ 20~30% 더 커져서 오래도록!

4. 확대시술 후 약화된 강직도 ➡ 강하고 단단하게!

15일간 사용해보고 이유 없이 반품, 환불

T. 1577-5579, 010-7636-3346

서울시 서초구 바우덕이로9길 20 (우면동) (주)케이엔제이스포츠

발상시 사이즈	뉴 맨 사이즈
6.50이하	조름 제작
6.5cm	1호
6.75cm	2호
7cm	3호
7.5cm	4호
7.75cm	5호
8cm	6호
8.25cm	7호
8.5cm	8호
8.75cm	9호
9cm	10호
9.25cm	11호
9.5cm	12호
9.75cm	13호
10cm	14호
10.25cm	15호
10.5cm	16호
10.75cm	17호
11cm	18호
11.25cm	19호
11.5cm	20호
11.75cm	21호
12cm	22호
12.25cm	23호
12.5cm	24호
12.75cm	25호
13cm	26호
13.25cm	27호
13.5cm	28호
13.75cm	29호
14cm	30호
14.25cm	31호
14.5cm	32호
14.75cm	33호
15cm	34호
15.25cm	35호
15.5cm	36호
15.75cm	37호
16cm	38호
16이상	조름 제작